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10. 11. 10(수) 발표

김장철 채소류 가격 및 김장수요 관측 속보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농업관측센터

I. 주요 채소류 가격 전망

1. 배추

■ 11월 중순 이후 출하량 늘어나 김장철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듯

- 한파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생산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을배추 생산량은 평년 대비 2% 많은 138만톤 내외, 겨울배추는 평년 수준인 39만톤으로 전망된다.
- 9월 태풍 곤파스 등에 의한 피해로 11월 가을배추 주출하지역인 중부지방의 출하량이 적었으나, 남부지역 출하가 본격화되는 11월 중순 이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월 상순 상품 10kg당 6,900원이던 배추 가격은 중순 이후에는 5,000원대로 안정될 전망이다. 12월에는 전남 겨울배추 일부가 조기출하되면서 가격은 4,000~4,5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남부지방에 한파 피해가 있을 경우, 가격은 전망치보다 1,000~2,000원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형성 여하에 따라 탄력적인 출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겨울배추 재배관리를 통해 저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가을배추, 겨울배추 추정 생산량

단위: 천톤, %

구분	가을배추	겨울배추
2010	1,353~1,412	381~398
2009	1,583	316
평년	1,355	379
작년 대비	-10.8~-14.5	20.7~26.2
평년 대비	-0.2~4.2	0.4~0.5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무

■ 가을무 적고 겨울무 많아 겨울무 조기출하 필요

- 가을무 생산량은 평년보다 11% 감소한 56만톤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겨울무 생산량은 평년보다 18% 많은 20만톤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겨울무가 본격출하될 수 있는 12월 중순까지 가격은 평년 수준보다 높을 전망이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겨울무의 조기출하가 요구된다.
- 11월 가을무 주출하지역인 중부지방의 출하 지연으로 물량이 적었으나, 남부지방의 출하가 본격화되는 11월 중순 이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월 상순 상품 18kg당 1만 9,000원이던 무 가격은 중순 이후에는 1만 5,000원 내외로 다소 안정되겠으며, 12월 상순부터는 겨울무가 일부 출하되면서 1만~1만 5,0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남부지방에 한파 피해가 있을 경우, 가격은 전망치보다 5,000원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무는 한파에 의한 피해가 배추보다 크므로 농가들의 철저한 포전 관리가 요구된다.

■ 가을무, 겨울무 추정생산량

단위: 천톤, %

구분	가을무	겨울무
2010	557	196
2009	624	168
평년	624	166
작년 대비	-10.9	16.7
평년 대비	-10.7	18.0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3. 건고추

■ 강세를 보이던 건고추 가격은 김장철에 약보합세로 돌아설 듯

- 금년 건고추 생산량은 작황 부진으로 평년보다 29% 적은 9만 5천톤으로 추정된다. 11월 상순에 상품 600g당 8,800원으로 강세를 보이던 건고추(양건) 도매가격은 김장철에는 8,000~8,600원의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고추 추정 생산량

구분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톤)
2010년산		44,584	214	95,235
2009년산		44,817	262	117,421
평년		50,732	259	133,729
증감률 (%)	작년	-0.5	-18.5	-18.9
	평년	-12.1	-17.6	-28.8

주: 2010년산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4. 마늘

■ 마늘 김장철 가격 평년보다 높으나 전월에 이어 약보합세 전망

- 10월 20일까지 부패율 적용한 조정 채고량은 4만 7천 톤으로 작년보다 27%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출고량은 작년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 저장 물량의 빠른 소진에 따라 조기 출하가 이루어졌고, 최근 정부수입물량 증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정부수입물량의 경우에는 현재 국내 깎마늘 가공업체에서 깎마늘 형태로 가공을 하여 시장에 방출을 하고 있다.
- 금년 마늘 생산량 감소로 마늘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3배 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김장철인 11~12월 정부수입물량 증량에 따라 가격은 전월에 이어 약보합세인 kg당 5,700원으로 전망된다.

5. 양파

■ 저장양파 부패율 낮아 실재고량은 작년보다 4% 많아

- 10월말 양파 채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3% 적은 41만 7천톤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금년 저장양파 부패율(12%)이 작년(18%)보다 감소하여 부패율을 적용한 조정채고량은 36만 5천톤으로 작년보다 4%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정부수입물량(1만톤 이상)이 도입된다면 11월 수입량은 전월과 작년 동월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양파 11월 상순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2만원으로 강보합세이다. 이는 주산지의 양파 정식에 따른 인력 부족과 예상됐던 정부수입물량의 도입이 지체됨에 따라 일시적인 강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파 정식이 완료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11월 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상품 20kg당 1만 8천원으로 전망된다.
- 12월 양파 가격도 재고량 감소로 평년 대비 강세이나, 중국산 양파 수입량 증가와 저장 양파 부패율 감소로 가격은 1만 7천~1만 8천원으로 11월과 비슷한 것으로 전망된다.

■ 양파 저온저장량 출고 및 재고 동향

단위: 톤, %

연산	저장량	10.20일까지	10.20일까지	10.20일 현재	총재고량	조정재고량	
		출고량	재고량	정부 비축물량		(부패율적용)	
2010	573,831	157,156	416,675	0	416,675	365,797	
2009	578,815	148,161	430,654	0	430,654	351,624	
평년	503,017	145,460	359,705	-	359,705	305,455	
증감률	작년	-0.9	6.1	-3.2	-	-3.2	4.0
	평년	14.1	8.0	15.8	-	15.8	19.8

주: 조정재고량은 총재고량을 작년부패율 18.4%, 금년 12.2%를 적용하여 환산.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6. 대파

■ 대파 가격 하락세를 보이겠으나, 여전히 kg당 2,000원대로 높겠음

- 11월 상순 대파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2,600원으로 작년의 두 배 수준이지만, 10월 하순보다는 14% 하락하였다.
- 향후 대파는 겨울대파 조기 출하로 물량이 회복되면서 하락세를 보여, 11월 하순 이후 김장철에는 2,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파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2,700원 이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7. 쪽파

■ 쪽파 김장철 가격 평년보다 높으나 10월보다 약세 전망

- 11월 중순부터 주산지인 전남지역의 본격적인 출하로 쪽파 11월 상품 도매가격은 2,500원~3,000원/kg으로 평년보다 높지만 10월보다 40%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월의 경우는 일부 주출하지역의 출하 완료로 인해 전월보다는 다소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8. 당근

■ 연말까지 국내산 당근 출하량 적어 높은 가격 유지할 전망

- 금년 말까지 당근 공급 상황은 수입량은 작년보다 많아지지만, 국내산 출하량이 적어질 전망이다. 11월 국내산 출하량은 태풍 곤파스로 가을당근 폐작이 발생하였고, 작황도 좋지 않아 작년 동월보다 31% 감소할 전망이다. 12월 국내산 출하량은 주산지인 제주지역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12% 감소할 전망이다.
- 가정에서 선호하는 국내산 상품 물량 부족으로 금년 말까지 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가을당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11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60% 높은 상품 20kg당 3만 5,000원으로 전망된다. 겨울당근 출하가 본격화되는 12월에는 11월보다 다소 낮은 3만원으로 예상된다.

9. 풋고추

■ 11월 하순 이후 풋고추 가격상승폭 다소 둔화될 전망

- 강원지역 출하 종료와 충청·전남지역 재배면적 감소, 생육부진 등으로 일반풋고추 11월 출하량은 전년대비 7%, 청양계풋고추는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양념채소관측월보 11월호). 그러나 10월 하순부터 기온이 급격히 하락하여 생육 부진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 상순 풋고추 가격은 상품 10kg당 일반풋고추는 4만 8천원, 청양계풋고추는 6만 1천원으로 전월보다 3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주산지인 충청지역에서 기온 하락으로 단수가 낮아졌으며 전남지역은 정식지연으로 상순의 출하량 감소폭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월 일반풋고추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44% 높은 5만 3천원, 청양계풋고추는 전월보다 34% 높은 6만 1천원으로 전망된다.

- 12월은 전남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이루어지고, 경남지역의 생육상황이 양호하며, 가온 시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출하량 감소폭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폭은 감소할 전망이다.

II. 김장수요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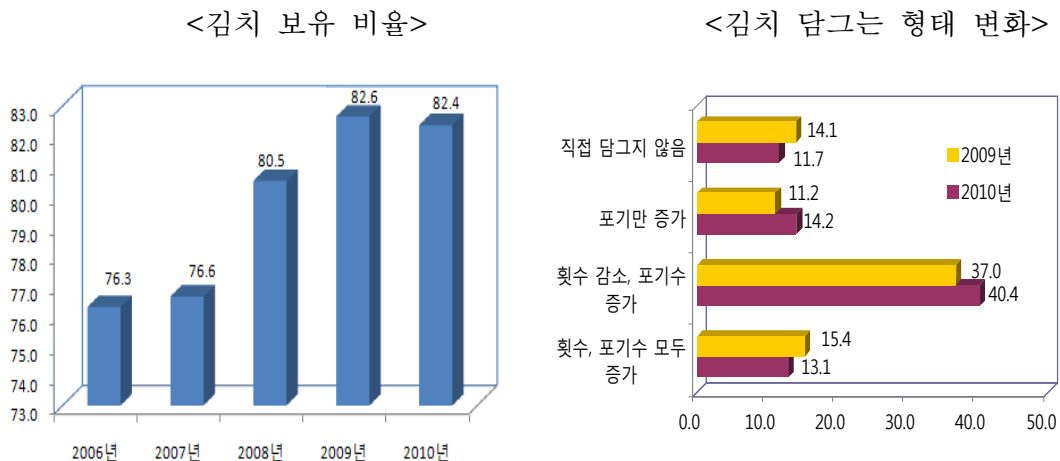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패널을 대상으로 금년도 김장 의향을 조사하였다.
 - 본 조사는 2010년 11월 2~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 이메일 보유 소비자 패널 1,000세대 중 유효 응답 수는 788명으로 78.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2. 소비자의 김장 소비 패턴 변화

■ 김치냉장고 구입이후 김치 담그는 횟수 감소하고, 포기수는 증가

- 김치냉장고 보유 비율은 82.4%로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이후 김치 담그는 행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치를 담그는 횟수는 감소하고, 포기수는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그림 1. 김치냉장고 보유 비율 및 행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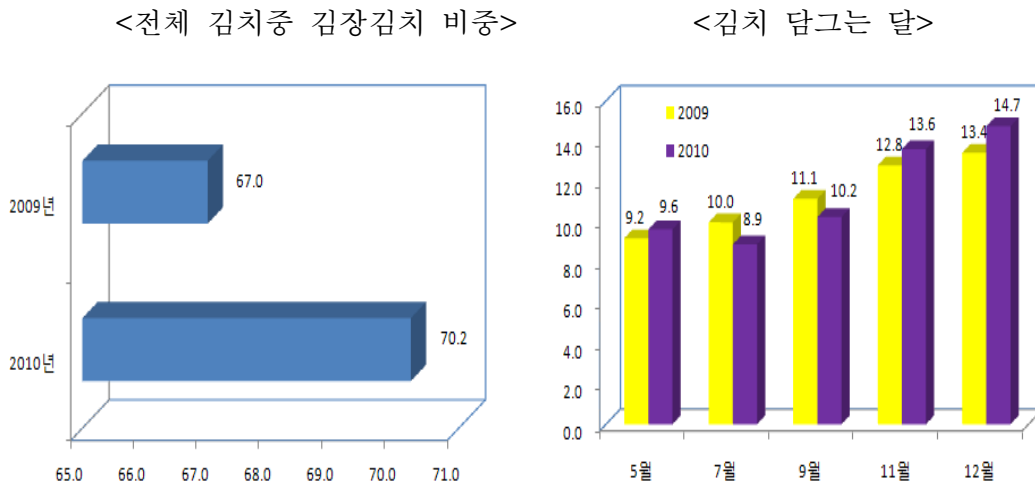


- 다음으로 '담그는 포기만 증가'(14.2%), '담그는 횡수와 포기수 모두 증가'(13.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김치냉장고 사용으로 많은 양의 김치를 장기간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연간 김치 소비 중 김장 김치 비중은 70%

- 연간 담그는 전체 김치 중 김장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70.2%로 작년(67%)보다 3.2% 증가하였다. 김치를 주로 담그는 달은 김장철이 포함된 11~12월과 5월, 7월, 9월로 나타났다. 한편, 배추 가격이 작년보다 비쌌던 7월, 9월은 김치를 담궜던 가정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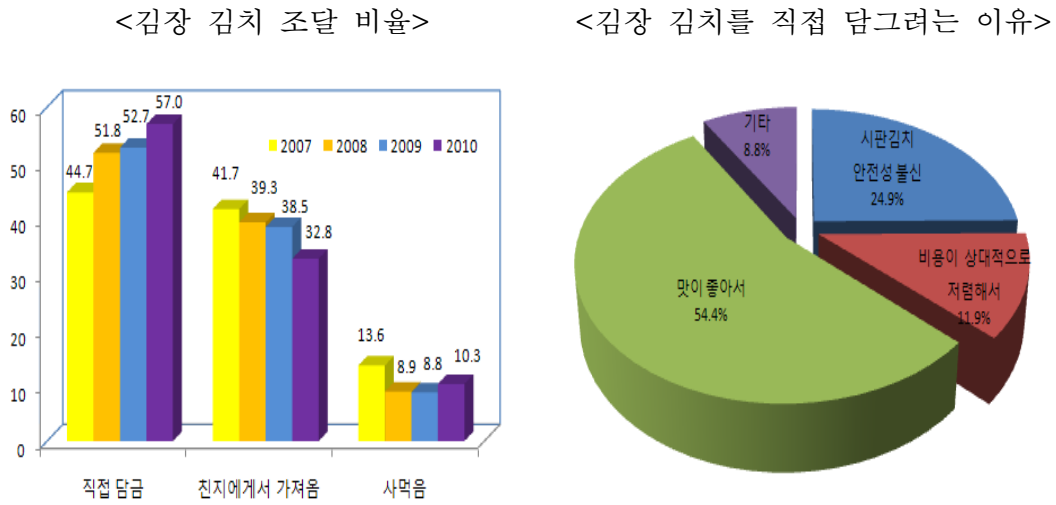
그림 2. 김장김치 비중 및 김치 담그는 달



■ 김장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율이 작년보다 4% 증가

- 금년에 김장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율은 57.0%로 작년(52.7%)보다 4% 증가하였다. 김장 김치를 친지로부터 조달하는 비율은 32.8%로 작년보다 5.7% 감소한 반면, 시판용 김치를 사먹겠다는 비율은 10.3%로 1.5% 증가하였다.
- 김장 김치를 직접 담그려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맛이 좋아서'가 5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판 김치의 안전성 불신'이 24.9%, '김치를 사먹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11.9%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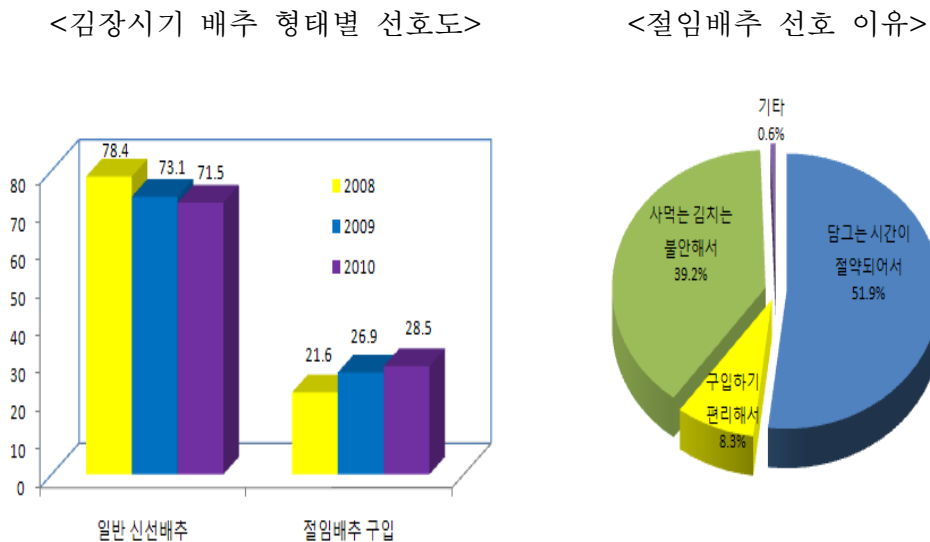
그림 3. 김장 김치 조달 비율 및 직접 담그려는 이유



■ 신선배추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지만 절임배추 선호도 증가 추세

- 김장 김치를 담글 때 배추 형태별 선호는 '신선배추'가 71.5%, '절임배추'가 28.5%로 조사되어, '신선배추'를 '절임배추'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김장 시 배추 형태별 선호도 및 절임배추 선호 이유



○ 그러나 '절임배추'의 선호도가 작년(26.9%)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절임배추를 구입하는 이유는 '김치를 담그는 시간이 절약되어서'가 5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사먹는 김치는 불안해서'가 39.2%로 나타났다.
- 소비자의 절임배추 구입처는 김장철이 아닌 시기에는 '대형유통업체'가 36.4%로 가장 높았으나, 김장철에는 '지인을 통해 구입' 비중이 43.2%로 가장 높았다.
- '지인을 통해 구입'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50.0%가 '품질을 믿을 수 있어서'로 답변하여 일반 업체에서 생산하는 절임배추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금년 김장 시기는 작년보다 늦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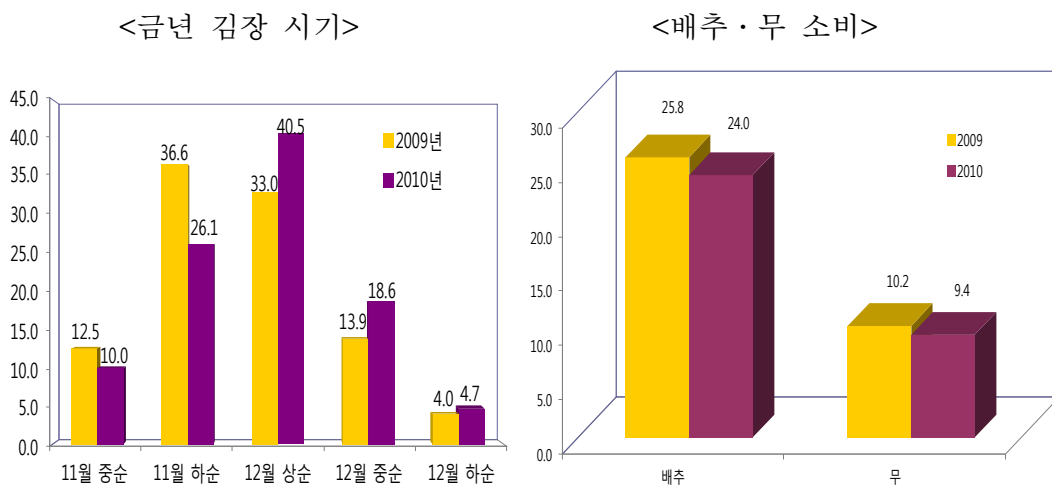
○ 금년 김장 시기는 11월(36.1%) 보다 12월(63.8%)에 담그는 비중이 크게 높아 작년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 작년 김장 시기는 11월(49.1%)과 12월(50.9%)의 비중이 비슷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응답자의 66.6%가 11월 하순과 12월 상순에 김치를 담글 예정으로 나타나 이 시기가 주요 김장철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1월 하순'에 김치 담그는 비중이 26.1%로 작년(36.3%)보다 줄었고, '12월 상순'에는 40.5%로 작년(33.0%)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 금년 김장 시기 및 배추·무 소비



■ 금년 김장 배추·무 소비는 작년보다 줄어 들 듯

- 금년에 김장 김치를 담그기 위한 배추 포기 수는 24포기(4인 가족 기준)로 작년(25.8포기)보다 1.8포기 감소할 전망이다. 무 역시 9.4개를 소비할 것으로 조사되어 작년(10.2개)보다 0.8개 줄어 들 것으로 조사되었다.
- 김장 김치를 줄이는 이유는 '배추 및 재료값이 비싸서'가 72.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김장 김치를 줄이는 첫 번째 이유로 '1인당 김치 소비량이 줄어서'(37.8%)를 꼽은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9월 이후 배추를 비롯한 채소류 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